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uronav doubles down on ammonia with orders for suezmaxes and third VLCC

Euronav는 현대삼호중공업에 3척의 암모니아 추진 Suezmax선박을 발주하고, 연초 주문에 VLCC 옵션 1척을 추가했다고 했다고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3년 3분기, 2024년 1분기임. (Tradewinds)

금년 중 선대의 8% 선주 바뀔 듯

금년 기록적으로 글로벌 선대의 8%가 주인이 바뀔 전망이다. 확실한 녹색추진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신조선발주 대신 중고선을 다수 매입한 결과임. 금년 상반기 매매된 선박은 8,500만DWT로, 전년동기대비 13% 상승함. (선박뉴스)

“한국, 中日 제치고 돈 되는 선박 싹쓸이”...상반기 수주 7배 늘었다

한국 조선사들의 올 상반기 선박 수주량이 전년동기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누적선박수주량 1위인 중국과의 격차를 12,000CGT로 좁혔고, 이는 1,5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에 불과한 규모로 하반기 중 추월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됨. (매일경제)

바이든 인프라 계획 '청신호'...美 하원 의원 50여명 찬성

민주당, 공화당 의원이 29명씩 속한 '프라블럼 솔버 코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인프라 투자계획에 찬성한다고 발표함. 빠른 8월 휴회를 앞두고 이달 중 의회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아시아경제)

현대로템, 3,354억원 규모 탄자니아 전동차·전기기관차 수주

현대로템은 탄자니아 철도공사에 2,157억, 1,197억원 규모 전동차, 전기기관차 사업에 수주성공함. 2024년까지 납품될 예정임. (뉴스1)

도요타 제쳤다...두산밥캣, 美 지게차 공급 1순위 협상자로

두산밥캣, 미국 장비렌탈 업체와 지게차 대량공급을 위한 협상 진행. 도요타가 환경요건을 못맞춰 1순위 공급업체로 올라섰다고 보도됨. (매일경제)